

2010년 3월 20일 회개의 근본은 사랑이다(091204)-양귀비

여자치어부 교역자

2009.12.4 금요 성령 집회 때 밤 10시경

하나님의 말씀

회개다. 회개다. 나에게 오는 길이 회개다. 회개의 근본은 사랑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회개하는 것이다. 너가 가지고 있는 마음을 전해주어라. 회개의 근본, 지옥가기 무서워 회개하느냐 그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주예수를 사랑하니 이 천국에서 나와 같이 살고 싶어 회개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 너의 마음처럼, 너 지옥가면 내가 얼마나 힘들까, 내가 얼마나 슬플까, 내가 얼마나 죽을만큼 아플까, 그 마음 그 생각으로 나를 위해 천국 오겠다 함이 아니냐. 그래 그 마음이 난 좋다. 너의 죄를 다 회개시키고 용서해 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좀더 조금만 더 깊게 회개 하라. 회개 성공이 얼마 안남았다. 섭리사 회개 성공이 얼마 안남은 자들이 있구나. 하나 둘 생겨 더욱 많아지고 있다. 답답하지? 얼마나 더 회개해야하나 답답하지? 그저 회개해. 너를 최고로 사랑하는 자가 너희 죄로 인해 마음이 아프다잖아. 내가 너의 작은 죄로 인해 마음이 아프다잖아. 너의 작은 죄도 사탄이 잡고 있으니 내가 너를 내 나라 데려올 수 없어 내 마음이 아픈 것이잖아. 알아라, 내 이심정 알아라. 제발 걸만 보지마 속속들이 알려고 몸부림 쳐봐. 내가 다 가르쳐 줄거야. 사탄들은 아무것도 가르쳐 줄 수 없어. 내가 나 여호와와 예수가 가르쳐 줄거야. 사탄들은 주어들은 그것만 알려줄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근본을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다. 나를 따라 회개하자. 그래, 울부짖고 너의 사랑을 다해 나에게 구해라, 구해. 내가 너를 사랑하여 용서해주고 싶어하잖아. 너의 사랑이 키가 되어 예수의 마음, 나의 마음을 연다. 사랑해서 회개하여 내가 원하는대로 내 나라로 오는 것이다. 내가 원하고 있다. 전지 전능한 내가 원하는 바다. 그러니 너가 구하면 너희 섭리가 구하면, 내가 이루리라. 용서의 역사를 이루리라. 주 여호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너를 기다린다. 너의 고백을 기다린다. 그래 미안한 마음 다 내게 고백하라. 죽을 만큼 간절함으로 나는 기다리고 있다. 예수는 어쩌나. 이미 죽다시피 너의 옆에서 그 심장 움켜잡고 너가 회개하기를 기다린다. 내 사람들 섭리야, 내 신부들아, 너희 모든 것을 내가 받으리라. 내가 받을 것이니 너는 내게 맡겨라. 사랑한다. 주 여호와니라. 너의 사랑이니라. 기다리는 자다.